

민요공동체의 문화권역적 전개와 지역문화적 특성*

—산다이를 중심으로—

홍순일**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반도 도서·연안지역 민요공동체(산다이)를 섬의 관점에서 살펴되, 문화권역적 전개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현사회에서 지역문화로서 기능 환기와 의미부여가 지니는 사적 가치를 살핀 것이다.

우선 민요공동체의 문화권역적 전개를 고찰했다. 문화권역을 설정하는 전제로서 구역(區域)은 섬의 시각에 따라 해역(海域)을 보는 경우, 서남해권, 서해권, 남해 및 제주권, 동해권 등의 4구분은 서남해역, 제주해역, 동남해역, 서해해역, 동해해역 등의 5구분이 사안에 따라 재구성된다. 민요공동체(산다이)는 문화권역의 신앙, 의례, 놀이, 노동에서 장례 후 잘 노는가 아예 놀지 않는가의 정도에 따라 전개된다. 증도지역민, 거문도(서도)지역민, 남해도(창선도, 삼동면)지역민은 장례 후 아예 산다이를 하면서 놀지 않는다. 이때 그것은 의례를 중시하여 교육의 장이 된다. 이에 비해 지도지역민, 보길도지역민은 상(喪) 중이나 장례 뒤에 산다이를 하면서 논다. 이때 그것은 놀이를 중시하여 노래판이 된다.

다음으로 민요공동체의 지역문화적 특성을 검토했다. 민요공동체(산다이)는 권역 내 지역별로 전개되면서 마을사람들이 지니는 공동의 유대나 집합정신을 구현한다. 민요공동체(산다이)는 놀이를 지향하는 소리문화의 연행물로서, 일상활동, 생산활동, 갯신활동(更新活動)의 통일과 그 작용에 의해서 시가무(詩歌舞)+놀이를 전유한다. 또한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005-J02701).

* 이 논문은 2009년 08월 21일, 역사문화학회 심포지엄 『공동체 지역문화와 문화권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임.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신앙, 의례, 놀이, 노동 등이 통합된 개방적 장르 체계를 가지면서 민요공동체의 독특한 기능을 환기하고, 그것의 의미를 부여한다.

끝으로 민요공동체인 산다이의 사적 가치를 살폈다. 산다이의 민요공동체는 소통공간(疏通空間)으로서 민요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의 장이고, 연행할 때 민요의 기능과 의미를 확장시키는 노래판이며, 마을을 민요로 전유해 나가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마을'이 총화(總和)되어 민요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조사의 결절점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주제어> 민요공동체, 산다이, 문화권역, 지역문화, 섬, 반도, 해역, 지역, 전개, 특성, 개별성, 일반성

- 목차 -

1. 머리말
2. 민요공동체의 문화권역적 전개
3. 민요공동체의 지역문화적 특성
4. 민요, 민요공동체, 마을의 삼자관계와 사적 가치
5. 맺음말

1. 머리말

민요공동체는 사회적으로 문화권역이 전개되고, 역사적으로 지역문화가 특성화된 실체이다. 민요는 공동체 지역문화의 하나이고, 민요공동체는 문화권역의 징표¹⁾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민속학에서 민속문화를 대상으로 하여 문화권역을 나누어 왔다. 농경세시를 대상으로 한 한반도 농경문화의 영역(단오권·추석권), 민속예술로서 농악, 민요, 무가, 판소리 등의 문화권역이 그것이다. 지역문화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일부 권역들은 서로 매우 일치하기도 한다. 범주로 보면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권역구분도 있고, 특정

1) 징표(徵表)는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별하여 그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이는 지표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물을 특정지우는 성질이다(속성, 양식, 성격, 빈사, 기호 따위의 뜻으로도 쓰임).

지역 내의 세부적인 문화권역구분도 있다. 그런데 ‘민요공동체’라는 대상을 가지고 권역을 구분한 적은 아직까지 없었고, 또 공간적으로는 내륙의 문화를 중심 대상으로 하다 보니 섬과 도서문화는 권역구분에서 상대적으로 주변화 되어 있었다.²⁾

그리고 민요공동체 산다이의 경우, 민속은 민중의 전통문화이고, 민속학은 마을 단위의 삶의 현장에서 전승되는 현재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민요공동체 ‘산다이’의 민간적 성격인 놀이(지춘상·나경수,³⁾ 나승만,⁴⁾ 이경엽,⁵⁾ 홍순일,⁶⁾ 나경수,⁷⁾ 이창식⁸⁾), 의례(전경수⁹⁾)와 그것의 변화를 중요하게 살피

- 2) 김월덕, 『민요공동체의 지역문화적 특성과 문화권역적 전개—산다이의 개별성과 일반성을 중심으로—』(홍순일)에 대한 토론문, 『공동체 지역문화와 문화권역』, 역사문화학회, 2009, 85쪽.
- 3) 산다이는 놀이판이다(지춘상·나경수, 『진도아리랑 형성고』, 『호남문화연구』 18,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988을 논평한 나승만, 『노래판 산다이에 대한 현지작업』, 『한국민요학』 4, 한국민요학회, 1996, 39~62쪽 중 54쪽 참조).
- 4) 산다이는 전남 도서 해안 지역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노는 행위이고,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도덕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어 본성에 충실한 정서를 노래하는 문화관행의 놀이요 예능장치라고 하면서 그간의 논의와 개념 정리, 용어의 이해, 연행 주체와 변화, 기능, 문화사적 위상을 밝혔다(나승만, 『소안도 민요사회의 역사』, 『도서문화』 11,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3, 125~190쪽; 나승만, 위의 논문, 1996, 39~62쪽이 있고, 이외에 나승만, 『소포리 노래방 활동에 대한 현지 연구』, 『역사민속학』 제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1993, 27~45쪽; 나승만, 『완도 지역 민요연행의 실상과 변천』, 『민요논집』 제2집, 민요학회, 1993, 77~109쪽 등이 있음).
- 5) 산다이는 서해안 도서·연안지역에서 포구를 통해 전승되고 있는 놀이판이고, 산다이가 포구에서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포구 산다이가 마을 산다이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이경엽, 『임자도의 파시와 파시 사람들—파시 사람들의 생활과 현지 주민들의 관계—』, 『도서문화』 2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4, 353~383쪽 중 372~378쪽(4장 파시와 현지 주민들의 관계); 이경엽, 『도서·해양문화 연구의 쟁점—민속분야를 중심으로—』, 『도서학과 지역학의 탐색—서남해안지역의 역사와 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순천대 남도민속연구소, 2007].
- 6) 민요공동체(산다이)는 놀이를 지향하는 소리문화의 연행물이다(홍순일, 『민요공동체의 지역문화적 특성과 문화권역적 전개—산다이의 개별성과 일반성을 중심으로—』, 『공동체 지역문화와 문화권역』, 역사문화학회, 2009, 63~84쪽).
- 7) 산다이는 우리나라의 신명나는 놀이판이고, 산대(山臺)라는 말이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는데, 그것의 일본식 발음이다(나경수, 『해양민속학의 연구방향』,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양문화학 학술대회 자료집』 1,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9, 71~79쪽).
- 8) 산다이는 전남 도서(島嶼) 해안 지역에서 도서사람들인 청춘 남녀가 어울려 술 마시면서 음식을 먹고 노래 부르며 노는, 흥겨운 놀이판으로 존재하는, 지역적 놀이라고 했다. 산다이가 주로 거문도를 중심으로 한 삼치 어장권에 나타나기 때문에 썬데이(sunday)의 영국식 발음인

는 시도를 했다. 그리고 이 전통문화를 담당하는 주체는 민중이기도 하고, 이들이 속한 마을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것, 민요공동체 ‘산다이’는 민요와 마을이 총화된다는 것 등의 관점에서 민요공동체(나승만,¹⁰⁾ 홍순일¹¹⁾, 민속문화정보(홍순일¹²⁾와 그것의 변화를 중요하게 살피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민요공동체 자체에 대한 미시적 고찰과 다른 지역과의 사례대비연구가 미흡했다. 지역문화로서 민요공동체를 문화권역의 전개면에서 살피는 데에는 부족했던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현단계 민요공동체, 특히 산다이를 중심으로 문화권역적 전개와 지역문화적 특성¹³⁾을 살피는 일은 소리문화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학계의 숙제라고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민요공동체, 특히 산다이를 중심으로 문화권역적 전개와 지역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민요공동체의 문화권역적 전개를 권역의 구분과 민요공동체의 전개로, 다음으로 민요공동체의 지역문화적 특성을 지역의 구분과 민요공동체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핀 후 민요, 민요공동체, 마을의 삼자관계와 사적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산다이(sunday)로 보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무시하지 않는다[이창식, (미발표)「산다이의 재검토」,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양문화학 학술대회 자료집』 2,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09, 204~215쪽].

- 9) 산다이라는 전승문화태보다는 상례에서 의례적으로 이루어진 윤간을 통해 결손된 인적 손실을 보상하는 의례적 장치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전경수, 「사자를 위한 의례적 윤간-추자도의 산다이-」, 『한국문화인류학』 24, 한국문화인류학회, 1992을 논평한 나승만, 앞의 논문, 1996, 39~62쪽 중 54쪽 참조).
- 10) 나승만, 「남동리 민요공동체 당당패의 성립과정」, 『한국민요학』 제2집, 한국민요학회, 1994, 85~106쪽에서 민요공동체의 용어가 논제에 나타나지만, 나승만, 앞의 논문,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1993, 125~190쪽; 나승만, 앞의 논문, 한국역사민속학회, 1993, 27~45쪽; 나승만, 앞의 논문, 민요학회, 1993, 77~109쪽 등을 통하여 그 개념은 이미 형성되었고, 그 후 나승만, 앞의 논문, 1996, 39~62쪽을 통하여 계속 거론(學論)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사용한 민요공동체의 개념도 이러한 맥락에 있음을 밝힌다.
- 11) 마을간 도서지역 민요공동체를 관련시켰고, 시가무+놀이의 결합면에서 마을 자체와 마을간 네트워크를 보았다(홍순일, 「도서·연안지역 민요공동체의 성격과 민요의 연행양상」, 『한국민요학』 제22집, 한국민요학회, 2008, 377~409쪽).
- 12) 민속문화정보를 민요공동체에 한정시켜 논의했다(홍순일, 「《도서지역 민요》와 민속문화정보」, 『한국민요학』 19, 한국민요학회, 2006, 275~313쪽).
- 13) 홍순일, 앞의 발표논문, 2009, 63~84쪽.

이 작업을 위한 주자료는 참고문헌에 제시된 문헌·현지조사 자료¹⁴⁾이다. 이것은 섬의 시각에 따른 해양·도서[섬]·연안·강·들[평야]·산의 측면에서 다룬 것이다. 즉 서남해권, 서해권, 남해 및 제주권, 동해권 등 4구분을 하되, 서남해역, 제주해역, 동남해역, 서해해역, 동해해역 등 5구분에서 사안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다. 여기에서 문화권역¹⁵⁾은 어떤 공동적 특징을 갖는 문화의 세력권 안에 있는 해역(海域) 내지 지역(地域)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논의는 자기 지역의 문화가 인근 지역의 그것과 어떻게 같고 다른가 하는 전국적 분포로서의 문화의 위상을 파악하는데 종합적 시각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¹⁶⁾ 즉 민요공동체가 사회적으로 문화권역이 전개되고, 역사적으로 지역문화가 특성화된 실제임을 아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2. 민요공동체의 문화권역적 전개

여기서는 필자가 다음 장인 제3장과 제4장의 논의를 뒷받침해 주는 방향에서 민요공동체의 문화권역적 전개를 논의하기로 한다. 민요공동체, 특히 산다이를 중심으로 문화권역적 전개와 지역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민요공동체의 문화권역적 전개를, 권역의 구분과 민요공동체의 전개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14) 여기에서 민요공동체인 산다이는 도서민들이 ‘산다이’라고 지칭했거나, 산다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산다이처럼 간주된 것이 포함된다.

15) 이론상 행정 광역(廣域)과 다르나 실제상 같은 부분이 나타나기도 한다.

16) 이해준, 「첫 번째 날 종합토론 및 강평」, 『공동체 지역문화와 문화권역』, 역사문화학회, 2009.

1) 권역의 구분과 지역문화

여기에서는 시선의 방향에 따라 두 가지로 양분하고자 한다. 하나는 반도의 시각으로서 산·들[평야]·강·연안·도서[섬]·해양의 측면에서 보는 경우이고, 지역(地域)의 구분은 연구대상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¹⁷⁾

4구분의 경우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해외권 등이다.

6구분의 경우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해외권 등이다. 4구분의 중부권이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7구분의 경우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제주권, 경상권, 해외권 등이다. 6구분의 호남권이 전라권과 제주권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11구분의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 강원권[강원도], 충청권[충남, 충북], 전라권[전남, 전북], 제주권[제주도], 경상권[경남, 경북], 해외권[해외]이다. 수도권의 서울, 경기, 강원권의 강원도, 충청권의 충남, 충북, 전라권의 전남, 전북, 제주권의 제주도, 경상권의 경남, 경북, 해외권의 해외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17구분의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인천)], 강원권[강원도], 충청권[충남(대전), 충북], 전라권[전남(광주), 전북], 제주권[제주도], 경상권[경남(부산,

17) 현단계 해역(지역)은 강, 해산물, 해류 등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다. 강의 경우 금강 하구는 서남해권과 서해권의 경계일 수 있고, 섬진강 하구는 서남해권과 동남해권의 경계일 수 있으며, 영산강은 동남해권과 동해권의 경계일 수 있다[홍순일 조사·최영호(남, 52, 동아대 석당 학술원) 제보, <권역구분의 기준>, 전남 목포시 신안비치호텔, 2009.10.23(금)12:00]. 그러나 필자는 “문화권역을 설정하는 것이 환경이나 대상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특질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방언권이나 민요권, 놀이권, 명절권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문화권역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시도는 있었으나 미흡하므로, 추후에도 계속 논의되어야 하겠다(홍순일, 『도서·연안지역 민요공동체의 성격과 민요의 연행양상』, 『한국민요학』 제22집, 한국민요학회, 2008, 377~409쪽; 홍순일, 『민요공동체의 지역문화적 특성과 문화권역적 전개—산다이의 개별성과 일반성을 중심으로—』, 『공동체 지역문화와 문화권역-민요와 문화권역』, 역사문화학회, 2009, 63~84쪽 중 66~68쪽; 목포대, 2009년도 인문학지원사업 인문분야 신청서 『섬의 인문학—문명사적 공간인식 패러다임의 전환—』 (1),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9).

울산), 경북(대구)], 해외권[해외] 등이다.¹⁸⁾ 이것은 7구분에서 11구분하고 11구분에서 17구분한 것이다. 수도권인 서울, 경기(인천)는 서울, 인천, 경기로, 강원권의 강원도는 강원도로, 충청권의 충남(대전), 충북은 대전, 충남, 충북으로, 전라권의 전남(광주), 전북은 광주, 전남, 전북으로, 제주권의 제주도는 제주도로, 경상권의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으로, 해외권의 해외는 국제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7구분은 4구분에서 6구분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11구분과 17구분되게 했다.

다른 하나는 섬의 시각으로서 해양·도서[섬]·연안·강·들[평야]·산의 측면에서 보는 경우이고, 해역(海域)의 구분은 연구대상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고 있다.

『한국의 해양문화』¹⁹⁾에서 5구분한 경우이다. 여기에서 조사 대상 지역은 한국(남한)의 연안·도서지역이며,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5개 해역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했다. 서남해역, 제주해역, 동남해역, 서해해역, 동해해역 등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 4구분의 경우이다. 이것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서남해권, 서해권, 남해 및 제주권, 동해권 등이다.²⁰⁾ 위의 『한국의 해양문화』 5구분의 제주 해역과 동남 해역이 남해·제주권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4구분은 5구분에서 사안에 따라 재구성된 것이다.

18) 이것은 2008년도 한국학기획연구사업 연구계획서의 경우인데, ‘중부권’은 서울·경기(인천 포함), 강원도, 충남(대전 포함)·충북이고, ‘호남권’은 전남(광주 포함)·전북, 제주도이며, ‘영남권’은 경남(부산·울산 포함), 경북(대구 포함) 등이다(『2008년도 한국학기획연구사업 한국학자료센터 구축사업 신청요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획연구사업단, 2008).

19) 나승만 총괄책임연구원/강봉룡·강영봉·강상택·주강현·강등학 권역책임연구원/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주관기관, 『한국의 해양문화』 1-5, 해양수산부, 2002. 여기에서 제시한 조사 지역은 서남해역(전남, 전북지역), 제주해역(제주도 해역), 동남해역(경남, 경북, 부산, 울산 해역), 서해해역(경기, 서울, 인천, 충청 해역), 동해해역(강원 해역)이다.

20)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신청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5.

요컨대 문화권역을 설정하는 전제로서 구역(區域)은 반도의 시각에 따라 산·들[평야]·강·연안·도서[섬]·해양의 측면에서 지역(地域)을 보는 경우,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제주권, 경상권, 해외권 등 7구분이 중심이 된다. 이것은 4구분에서 6구분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11구분과 17구분이 되게 한 것이다. 섬의 시각에 따라 해양·도서[섬]·연안·강·들[평야]·산의 측면에서 해역(海域)을 보는 경우, 서남해권, 서해권, 남해 및 제주권, 동해권 등 4구분은 서남해역, 제주해역, 동남해역, 서해해역, 동해해역 등 5구분의 중심에서 사안에 따라 재구성된 것이다.

2) 문화권역에 따른 민속공동체의 전개

민속은 민중의 전통문화이다. 민속학은 마을 단위의 삶의 현장에서 민간적인 성격의 신앙, 의례, 놀이, 노동과 그것의 변화를 중요하게 다루는 현재의 전승과학이다. 그런데 이 민속을 담당하는 주체는 민중이기도 하고, 이들이 속한 마을공동체이기도 하다. 이 민속공동체는 민중이 마을의 민속문화 생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동체들이다. 노동공동체, 의례공동체, 연회공동체, 경제공동체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민속과 민속학(비교학, 미학, 운동 포함)을 자체·연구·방법론에 따라 사례 중심으로 다룰 수 있듯이, 공동체, 특히 민속공동체도 그 자체를 방법론에 입각하여 연구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마을사람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공동의 유대나 집합정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민속공동체연구(Studies in folk communities)는 한국의 민중사회를 이루는 공동체들, 특히 민속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동체연구방법론에 의해 문화의 양상과 의미 그리고 기능을 분석·종합할 수 있는 작업이다. 이 연구과정에서 민속공동체를 통해 한국인, 민족, 민중의 생각을 확인하고, 위의 행위주체자들이 창조한 민속공동체를 통해 한국문화, 예술, 문학, 희곡의 세계를 이해하며, ‘현장의 현재적 상황에서 민속공동체현상의 본질을 탐

구하여 그 자체, 학, 비교학, 미학, 운동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민요공동체에 대한 접근도 이러한 정보의 방향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민요공동체는 권역별로 전개되고 있다. 서남해권의 경우 목포, 완도, 진도, 증도·임자도·지도·하의도 등에서, 서해권의 경우 법성포, 위도, 선유도·무녀도·장자도, 안면도(황도), 영흥도(선재도), 연평도에서, 남해 및 제주권에서 광양(진월), 추자도, 거문도, 남해도(창선도, 삼동면), 동해권에서 기장 등에서 민요공동체가 나타나고 있다. 문헌·현지조사 자료에 의하면 민요공동체(산다이)는 문화권역의 신앙, 의례, 놀이, 노동에서 장례 후 잘 노는가에 의해 놀지 않는가의 정도에 따라 전개된다.

(1) 장례 후 아예 놀지 않는 경우

여기서는 전남 신안군 증도,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장포마을, 같은 군 삼동면 물건리 등의 현지조사 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장례 후 아예 놀지 않는 경우²¹⁾는 의례지향의 민요공동체의 전형이다. 민요공동체(산다이)는 ‘민요’와 ‘마을’이 총화되어, 놀이를 중시할 때 노래판이 되는 것과는 달리, 의례를 중시할 때 교육의 장이 된다. 행위주체자가 구비전승물(민요, 판소리, 설화·고소설) 외에 마을[민속공동체]에서 민간적인 신앙·의례·놀이·노동 중 놀이의 도구[매체]를 가지고 놀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과정에서 실천의 장이 확대되는 결정점이 된다. 이 점은 현지조사 자료를 보면 분명해진다.

전남 신안군 증도지역 박성남(남, 69)²²⁾의 경우이다. 도서지역민은 산다이를 하되, 하루를 넘기지 않고 한다. 싸나운 집에는 가지 않는다. 그리고 마시는 것, 고기, 김치 등을 준비한다. 친한 친구, 지나가는 사람, 입향민 등 5~6

21) 홍순일, 앞의 논문, 2008, 377~409쪽 중 387쪽.

22) 홍순일·김현주·이혜숙 조사, 박성남(남, 69) 제보, <산다이, 한풀이, 물속에 잠긴 얼굴, 밤다래>,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2006. 4. 18.

명이 모이지만, 마을에서는 남녀를 구분한다. 다른 마을인 우전리 병풍도에 놀러가고, 장구·북으로, <한풀이>, <물속에 잠긴 얼굴> 등을 부른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후련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노래만 한다. 한편 소풍을 가서 하기도 한다.

이처럼 전남 신안군 증도 민요의 민요공동체와 문화권역적 전개를 보면 그렇지 않은 민요공동체에 비해 노래만 하고 춤의 요소를 빼고자 한다. 이는 마을에서 남녀를 구분하는데 비해, 산다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노래만을 하기를 바라는 관계의 결과이고, 춤의 놀이요소가 약화된 모습으로 이해된다. 이 점은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장포마을, 같은 군 삼동면 물건리 현지조사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지역 이정례(여, 74)·조경례(여, 86)·김춘심(여, 79)·김명례(여, 87)²³⁾의 경우이다. 산다이는 그 전에 ‘논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놀새~” 하는 ‘논다’의 일본말이다. 산다이는 명절인 설, 보름, 추석 때, 봄에 화전놀이할 때, 여름에 해수욕할 때, 계(동창, 갑장=동갑)할 때 한다. 그러나 초상 때는 안한다. 사람이 죽어서 울고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처녀는 시집가서도 계속 논다.

젊어서는 산에서 하다가 해변가에서 한다. 마을 너메 서도(西島, 이계미) 해수욕장에 가서 놀았으나, 요즘에는 별로 놀지 않는다. 이때 점심의 먹거리(술 포함)를 준비한다. 개인집이나 노인당에서 논다. 주로 조경례(여, 86)씨의 집에서 논다. 집이 넓고, 어른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번 놀면 저녁밥을 먹은 초저녁부터 12시 또는 1시까지이다. 조경례(여, 86)씨는 경비를 준비할 때 각자 추렴하지만 기분 좋으면 자기가 다 준비한다. 그리고 술, 과자, 김치 등을 간단히 준비한다.

23) 홍순일·조화영 조사, 이정례(여, 74)·조경례(여, 86)·김춘심(여, 79)·김명례(여, 87) 제보, <산다이>,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2009. 5. 8. 여기에서 홍순일·조화영 조사, 김동수(남, 75)·박천일(남, 78)·정종태(남, 75), <산다이>,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2009. 4. 23도 참조할 수 있다.

산다이는 또래끼리 하지만, 7살까지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이정례(여, 74)씨는 다른 또래와 놀았다. 20여 명이고, 하루 저녁에 다한다. 노래연습을 않고 시작하지만, 젊은이는 노래를 더하고, 노래하다가 춤도 춘다. 연장자는 이를 따라서 박수를 친다. 때에 따라서 남녀가 함께 한다. 여자친구는 계모임을 한다. 동창회는 결혼식 후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달 한 번 계장을 두고, 남녀가 함께 한다. 독신회는 10년 전에도 했고, 천원도, 5천원도 냈다. 술 안 마시면 못 논다.

또래와 또래가 합쳐지기도 한다. 서도가 주도하여 인근 동네의 또래가 온다. 2~30명이 된다. 그러나 서도사람들이 고도(古島)나 동도(東島)에 가는 일은 없다. 풍어제 때 놀 경우 네 동네가 다 같이 수협에서 모여 제를 지낸 후 배타고 각 동네를 돈다. 3~4년 전부터 제(祭)만 지내고, 오전에 수협에서 그냥 노는 것으로 바뀌었다. 흥이 있는 사람은 오라고 안 해도 와서 논다. 흥이 없는 사람은 오라고 해도 안 온다. 서도에는 학자가 많은 동네이다. 그러나 학자가 다 돌아가셨고, 있다면 몇 사람뿐이다.

취미가 있는 사람끼리 어울렸다. 이정례(여, 74)씨는 또래가 없었으나 팀을 이루었다. 이외에 조경례(여, 86)팀, 성네팀, 아래로 또 세 팀 등이 있다. 옛날부터 합쳐서 놀아서 남녀팀이 구분되지 않았다. 장구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장구, 북, 팽과리, 징 등도 다루었다. 그 전에는 북, 장구로 놀았으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전축, 녹음기를 틀어놓고 논다. 화전할 때 50 몇 살까지 “재화~” 하면서 새납을 붙였다.

누가 끝을 하면 합동으로, “뽕 따러가세~”를 한다. <노들강변>, <아리 룡>, <도라지>, <아리 아리랑> 등의 노래를 하다가 춤을 춘다. <거문도 노래>도 한다. 유행가도 알면 한다. 이때 오만 스트레스를 다 푼다. 노래를 하다가 놀이는 안 한다. 한편, 산에 갈 때 집에서처럼 한다. 한 사람이 곡을 내면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하고, 옆에서 또 그렇게 한다. 한 사람이 하면 목이 아프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민요의 민요공동체와 문화권역적 전

개를 보면 산다이는 일본말로 논다는 뜻이고, 세시(설, 보름, 봄의 화전놀이, 여름의 해수욕, 추석), 계 등에서 하고, 초상 때는 아예 놀지 않는다.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장포마을 하찬실(남, 86)·김길환(남, 88)·송덕화(남, 91)·하찬금(남, 80)²⁴⁾의 경우이다. 산다이는 장구를 두드리면서 노래하면서 노는 것이다. 산다이는 설, 정월 대보름(달집부수기), 추석 때, 결혼 할 때(장가들 때), 환갑(칠순, 팔순) 때 한다. 경비는 추렴한 돈이나 어른, 청년, 처녀 등이 한 부조(扶助)이다. 설날, 추석 때 자녀가 오면 제대로 놀 수가 없다. 특히 경로잔치 때의 노래자랑은 산다이 방식으로 행해진다. 군수, 면장, 이장이 삼천포 시내 뷔페 하늘, 동해, 만리장성 등 세 곳 중에서 한 군대를 정하여 행한다. 33개 마을의 노인회원 100여 명이 5~60만원을 쓴다.

요즘 관광 가는 것과 같이 먹고 노는 것을 ‘회선간다’고 한다. 봄 3월에 산이나 꽃밭을 찾아가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잘 먹고 논다. 20살 못 먹어서부터 30세까지 한다. 3월 3일 삼짱날, 하루 종일 놀 계획을 짠다. 계장과 계원 등 40~50여 명이 모여서 먹고 논다. 역시 회선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 마음대로 노래하고 춤추며 논다.

산다이는 집에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집에서 한다. 그 집에서도 음식을 내지만, 과자, 사이다, 엿, 술 등을 준비한다. 아는 사람과 노래연습도 한다. 남인수 노래를 잘 했으나, 나이드니까 잘 안된다고 한다. 경로잔치 때 여자와 함께 한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때 잘 안 오고, 저희들끼리 논다. 흔히 개인집에서 하고, 막걸리, 음식(구입한 문어를 술집에서 삶아 썬 것)을 먹는다.

산다이를 할 때 “그냥 올려면 오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안 가기도 한다. 그렇다고 안 부르지 않는다. 박인섭씨의 고 박인섭씨는 곡괭이질도 잘하고, 춤도 잘 춘다. 김수범씨의 김수범씨는 나이가 적어도 배울 만큼 노래하고 춤춘다. 이영감도 춤을 춘다. <육자백이>, “거나해~” 등 여러 가지를 한다.

24) 홍순일·조화영 조사, 하찬실(남, 86)·김길환(남, 88)·송덕화(남, 91)·하찬금(남, 80) 제보, <산다이>,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장포마을, 2009. 7. 21.

김연수팀의 김연수씨는 유행가를 잘 한다. 산다이는 경로잔치처럼, 관광같이 한다. 유행가, 노랫가락 등을 한다. 유행가는 “진주라 천리길”, “이 강산~”, “차표 한 장~” 등인데 주로 남인수, 김정구의 것이다. 노랫가락은 민요인데, 여자가 하던 것이다.

예전에 주로 손뼉을 쳤다. 계모임 때 동네 계원의 집에서 장구를 쳤다. 노래는 모임의 취미대로 부르고 싶은 것을 골라서 부른다. 여자는 노랫가락을 하면서 춤을 춘다.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면서 놀면 좋다. 작년에 내(하찬실, 86) 아내가 죽었다. 그런데 지금은 노래도, 춤도 안 나온다. 2년 지나고 나면 전과 같이 할 것이다. 사실 나이가 많아서 소리가 안 좋지만, 같이 놀 때는 기분을 맞추어준다. 산다이를 하다가 놀지는 않는다. 노래를 계속한다.

이처럼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장포마을 민요의 민요공동체와 문화권역적 전개를 보면, 산다이가 노래하고 장구 두드리고 노는 것이고, 일생(결혼, 환갑, 칠순, 팔순), 세시(설, 정월대보름, 추석)하며, 초상 때 안한다.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지역 이묘명(남, 78)·김영옥(남, 81)²⁵⁾의 경우이다. 산다이는 일본말로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두드리고 노는 것이다. 술 좌석을 벌리면은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기분이 좋으면은,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젓가락을 가지고 판대기를 두드리면서 노는 것이다. 산다이는 우리가 나기 전부터 있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한 잔 먹고 놀아보자.”, “산다이 한 번 하자.”고 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볼 때는 산다이가 없는 동네가 없다. 남해안도 그렇고 육지에서도 그렇다. 총각 때도 그랬었고, 결혼 후에도 그랬었다. 산다이는 명절인 설, 추석 때, 수시로 동갑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한 잔 먹을 때, 계모임 때 한다. 그러나 초상 때는 슬퍼서 못한다.

보통 산다이는 집에서 하지 않고, 주점(술집)이나 상점에서 한다. 명절 때 집에서 놀고, 마을 숲에서 별로 놀지 않는다. 관광객들이 놀리오면 자기네들끼리 많이 춤추고 논다. 처녀총각은 봄에 남해 금산 밑에 가서 춤추고 논다.

25) 홍순일·송기태 조사, 이묘명(남, 78)·김영옥(남, 81) 제보, <물건방조어부림, 산다이, 설화>,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2009. 7. 22.

이때 깡쇠(깡매기), 장구, 북, 징 등을 친다. 산다이는 또래끼리 하되, 5~6세 까지 3~8명이 논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적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는 산다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젊었을 때도 하고, 나이 많이 먹어서도 한다. 요즘도 모여서 한 잔 먹고 기분 좋으면, “우리 산다이 한 번 할래” 하면 하는 것이다. 술 한 잔 들어가면 장구로 장단 맞추면서 노래 부르고, 뛰고 솟고 춤추고 노는 것이다. 총각 때 결혼을 하기 전에도 23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산다이를 할 때 남자와 여자가 같이 논다. 그래야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산다이를 할 때 막걸리도 먹고, 소주도 먹고, 양주도 먹는다. 양주를 먹는 이유는 뒤가 깨끗하여 좋기 때문이다. 안주는 집에서 가져간 과자, 토마토, 참외 등 여러 가지이다. 고기는 사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데, 술집에서 회를 해먹는다. 삼치, 멸치, 고등어, 문어, 도다리, 대구 등이 있으나 도다리, 대구 등을 해먹는다. 한편, 동네를 넘어가서도 친구들과 술 먹고 논다. 거기서 친구들이 많이 모이면 산다이를 한다. 모인 친구들은 동천에 있는 삼동초등학교 동기생들이다.

그런데 산다이를 하자고 하면 다 좋아한다. 문제는 산다이를 시작할 때이다. 술을 사는 사람은 기분파들이다. “즈그 마 오늘 술값 내가 낸다, 한 번 놀아보자” 하고 어울려지면 산다이가 되는 것이다. 술(알콜) 한 잔 들어가면, 기분이 살아난다. “아이 형님 그 노래 한 곡 해보소”, “동생 노래 한 곡 해보게”, “그 한 번 해 볼라요?” 한다. 그러면 “한 번 해보세” 한다. 자기네끼리 나이가 동등한 입장에서 노는 경우도 있다. 또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한 잔 먹고 어울리면서 노는 경우도 있다.

회장이 “오늘은 여러분들 저 삼천포나 섬내 멋진 식당에 가서 오늘 저녁이나 한 끼 먹고 오자.”고 하면 돈 십만원씩 내고,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가서 한 잔 먹고 온다. 그러면서 차 안에서 막 두드리고 노는 것이다. 이때 춤추면서 멋지게 실컷 논다. 회관 내에서도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늘 한 잔 허세, 술도 있고 ……” 할 수 있다. 기분이 좋으면, “장구 한 번 때려 봐라, 노래 좀 한 곡 불러보자”고 할 수 있다. 우리 경로당도 간혹 가다 회장이 “장구

한 번 쳐소” 해서 내가 장구 한 번 쳐주면 노래도 부르고 춤추고 한다.

산다이 할 때 즐겨 부르는 노래는 좀 처량하게 부르는 노래도 있고, 느리게 부르는 노래도 있다. <초가삼간 집을 짓는>, <실버들 늘어진 언덕위에 (배호)>, <그런 여자여자>(설운도), <땡벌땡벌>,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송대관) 하는 노래이다. 산다이 할 때 뱃소리는 안 한다. 진도아리랑 처럼 즐겨 부르는 것이 없고, 강강술래는 모른다.

산다이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옛날에 고기를 잡으면서 소리했던 사람들어서, 선창을 부르고, 후렴을 부르면 따라 한다. 혼자 소리해서는 안 어울린다. 가래소리를 할 때 “세노야” 하고, “여 영~산 가래야” 하면 따라서 또 “영산 가래야” 한다. “이 가래가 누 가래가” 하면 “우리 선주 돈가래다” 한다. “불쌍헌 동무들이 뭇 묵고 돌아갈래” 또 이리하면, “선주만 돈 벌어주고, 우리는 뭇 묵고 돌아갈래” 한다. 뒤에 사람은 전부 “영산 가래야” 한다.

이처럼 경남 남해군(같은 군) 삼동면 물건리 민요의 민요공동체와 문화권역적 전개를 보면 산다이는 초상을 치른 후 안한다.

(2) 장례 후 잘 노는 경우

여기서는 전남 신안군 지도, 완도군 보길도 등의 현지조사 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장례 후 잘 노는 경우²⁶⁾는 놀이지향의 민요공동체의 전형이다. 민요공동체(산다이)는 ‘민요’와 ‘마을’이 총화되어, 의례를 중시할 때 교육의 장이 되는 것과는 달리, 놀이를 중시할 때 노래판이 된다. 행위주체자가 구비전승물(민요, 판소리, 설화·고소설) 외에 마을[민속공동체]에서 민간적인 신앙·의례·놀이·노동 중 의례의 도구[매체]를 가지고 놀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과정에서 실천의 장이 확대되는 결절점이 된다. 이 점은 현지조사 자료를 보면 분명해진다.

26) 홍순일, 앞의 논문, 2008, 377~409쪽 중 391~395쪽.

전남 신안군 지도지역 김이배(남, 82)·김인배(남, 66)의 경우이다.²⁷⁾ 산다는 서로 돌아가면서 노래하는 것인데, 제보자 때 산다이라고 했고, 그 전에 “놀자~”고 했다. 날씨가 좋을 때, 20~40대, 사람이 죽었을 때 ‘달애’²⁸⁾을 한다. 이때 이야기·노래·춤을 추지만, 역할극은 안한다고 했다. 산다이는 집, 산뒗산=당산=류산봉)에서 하는데, 집에서 할 때 참여자가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논다. 돌아가면서 집에서 음식을 차려준다. 닭, 소주, 막걸리, 돼지고기, 송어, 농어, 민어, 전어, 장어, 빨떡기, 꽃게 등이다. 또래끼리 하되, 남자들만 하거나 여자들만 한다. 노래내기는 개인 간 노래경쟁을 하되, 벌주는 일이 없고, 마을간 노래경쟁은 안한다. 나이별로 또래 산다이가 있다.

마을간 원정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드문 일이다. 노래는 한 번 돌아가면서 불리어지다가 나중에는 아무나가 한다. 손뼉치고 놓고, 보통 7~8명이 하며 노래하다가 춤도 춘다. <고기잡으러 산을 올라갈 때 부르는 소리>와 이미자, 남인수 등의 유행가를 한다. 지금은 “육자백이 노래방이 있었으면……” 하면서 노인당, 노래방에 간다. 마음대로 노니까 재미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화투도 친다는 것이다. 산에서는 등타기, 장기, 옷놀이, 화투도 한다는 것이다. 제보자 김인배는 교회를 마음으로 다닌다고 하고, 김이배는 교회는 취미가 아니라고 한다.

이처럼 전남 신안군 지도민요의 민요공동체와 문화권역적 전개를 보면 집과 산에서 시가무와 놀이의 요소가 결합되는 연행양상을 보여주고, 달애의 상황에서도 산다이는 ‘민요’와 ‘마을’이 총화되어, 놀이지향의 민요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전남 완도군 보길도지역 최영자(여, 53), 정매자(여, 55), 김재길(남 58) 외 11명의 현지조사 자료에서 확인된다.²⁹⁾ 이 자료는 명절 때,

27) 조사자 홍순일·김현주, 제보자 김이배(남, 82)·김인배(남, 66), <산다이, 지도민요>, 전남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2구 당촌마을, 2006. 7. 13.

28) 《신안민요》<밤달애 노래(362-365) CD·10-1 신안 밤달애 노래>, 앞의 전라남도민요해설집, MBC, 1993.

29) 나승만 조사, 최영자(여, 53)·정매자(여, 55)·김재길(남 58) 외 11명 제보, <장례 뒤의 산다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거나 밭일을 할 때, 노래판을 벌이고 놀 때 등과 함께 초상났을 때³⁰⁾ <장례 뒤의 산다이>의 면모를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전남 완도군 보길도민요의 민요공동체와 문화권역적 전개를 보면 장례 뒤에 산다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민요공동체(산다이)는 문화권역의 신앙, 의례, 놀이, 노동에서 장례 후 잘 노는가 아예 놀지 않는가의 정도에 따라 전개된다. 신안군 증도지역민, 거문도(서도)지역민, 남해도(창선도, 삼동면)지역민은 장례 후 아예 산다이하면서 놀지 않는다. 이에 비해 신안군 지도지역민은 상(喪) 중에 달애를 하고, 완도군 보길도지역민은 장례 뒤에 산다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 즉 민요공동체(산다이)는 ‘민요’와 ‘마을’이 총화되어, 의례를 중시할 때 교육의 장이 되고, 놀이를 중시할 때 노래판이 된다. 이것은 노동과정에서 실천의 장이 확대되는 결절점이 된다.

3. 민요공동체의 지역문화적 특성

여기서는 필자가 제2장을 전제로 민요공동체의 지역문화적 특성을 논의 하겠다. 민요공동체, 특히 산다이를 중심으로 문화권역적 전개와 지역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요공동체의 지역문화적 특성을 지역의 구분과 민요공동체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1) 지역의 구분과 문화권역

여기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섬의 시각으로서 해양·도서[섬]·연안·강·들[평야]·산의 측면에서 볼 때, 해역(海域)의 구분은 일차적으로 4구

이>,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1992. 1.15~19.

30) 나승만, 앞의 논문, 1996, 51쪽 참조.

분(서남해권, 서해권, 남해 및 제주권, 동해권)을 하되, 5구분(서남해역, 제주해역, 동남해역, 서해해역, 동해해역)에서 사안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지역문화의 장기지속과 단기변화에 따라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해역간의 경계에 관한 것이다. 물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한국의 해양문화』에서 5구분하고,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신청서에서 4구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역간의 경계 문제는 아직도 과제³¹⁾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른 지면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서남해권의 지역구분이다. 이 지역과 관련된 [해양·도서·연안]과 [강·들·산]의 문화요소는 전남 목포 조기잡이, 전남 진도군 진도민요·진도씻김굿, 전남 신안군 증도·임자도·지도·하의민요, 전남 무안군 무안민요, 전북 남원시 운봉읍 민요·판소리 등이다. 민요공동체는 목포, 완도, 진도, 증도·임자도·지도·하의도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서해권의 지역구분이다. 이 지역과 관련된 [해양·도서·연안]과 [강·들·산]의 문화요소는 전남 영광군 법성포 굴비, 전북 부안군 위도면 조기잡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무녀도·장자도, 충남 태안군 안면도 조기(꽃게)잡이,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도(풍어제)·선재도(바지락)·연평도(조기, 꽃게) 등이다. 민요공동체는 법성포, 위도, 선유도·무녀도·장자도, 안면도(황도), 영흥도(선재도), 연평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남해 및 제주권의 지역구분이다. 이 지역과 관련된 [해양·도서·연안]과 [강·들·산]의 문화요소는 전남 광양시 진월면 민어잡이, 제주권의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 추자면 멸치잡이(조기잡이),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멸치잡이·술비소리·뱃노래, 경남 남해도(창선도, 삼동면) 등이다.

31) 필자는 “여기서 지역별은 서남해권, 서해권, 남해 및 제주권, 동해권 등 권역별로, 주제별은 신앙, 의례, 놀이, 노동 등 갈래별로 이해하기로 한다.”고 했다(홍순일, 앞의 논문, 한국민요학회, 2006, 275~313쪽 중 277쪽). 그리고 “이때 편의상 전북은 서해권으로 넣어 다루기로 한다.”고 했다(홍순일, 『서해 도서지역의 구비전승물과 해양정서—조기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제28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 519~567쪽 중 525쪽).

민요공동체는 광양(진월), 추자도, 거문도(고도, 서도), 남해도(창선도, 삼동면)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동해권의 지역구분이다. 이 지역과 관련된 [해양·도서·연안]과 [강·들·산]의 문화요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동해안 별신굿(오구굿)이다. 이것을 예로 들어 민요공동체를 서술할 수 있으나 적실한 사례가 아니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추후에 조사자료를 추가·논의하기로 하겠다.

이처럼 섬의 시각에 따라 해양·도서[섬]·연안·강·들[평야]·산의 측면에서 문화권역을 구분하면 4구분(서남해권, 서해권, 남해 및 제주권, 동해권)할 수 있되, 이것은 5구분(서남해역, 제주해역, 동남해역, 서해해역, 동해해역)에서 사안에 따라 재구성된다.

요컨대 권역내 지역이 섬의 시각을 씨로 하고, 지역문화의 장기지속과 단기변화를 날로 하여 구분될 때, ‘민요’와 ‘마을’이 총화된 민요공동체 산다이는 권역별로 전개된다. 서남해권의 경우 목포, 완도(보길도), 진도, 증도·임자도·지도·하의도 등에서, 서해권의 경우 법성포, 위도, 선유도·무녀도·장자도, 안면도(황도), 영흥도(선재도), 연평도에서, 남해 및 제주권의 경우 광양(진월), 추자도, 거문도, 남해도(창선도, 삼동면) 등에서, 동해권의 경우 기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2) 지역문화에 따른 민요공동체의 특성³²⁾

민요공동체(산다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단계 서남해권의 경우 목포, 완도(보길도), 진도, 증도·임자도·지도·하의도 등에서, 서해권의 경우 법성포, 위도, 선유도·무녀도·장자도, 안면도(황도), 영흥도(선재도), 연평도에서, 남해 및 제주권에서 광양(진월), 추자도, 거문도, 남해도(창선도, 삼동면), 동해권에서 기장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32) 홍순일, 앞의 논문, 2008, 377~409쪽 중 383~384쪽 참조.

그러면 <서남해권>, <서해권>, <남해 및 제주권>, <동해권> 등 권역별 민요공동체(산다이)의 문헌/현지조사 자료를 대비할 때 일반성과 개별성은 무엇인가.

하나는 민요공동체 산다이의 일반성이다. 첫째, 역사적으로 지역문화가 특성화되고, 사회적으로 문화권역이 전개된 실체로서, 놀이를 지향하는 소리 문화의 연행물이라는 점이다. 산다이는 행위주체자가 민요, 판소리, 설화·고소설 등의 구비전승물 외에 마을에서 민간적인 신앙·의례·놀이·노동 중 놀이의 도구[매체]를 가지고 놀되, 의례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민요’와 ‘마을’이 총화된 산다이는 노동과정에서 실천의 장이 확대되어 놀이지향의 노래판을 만들기도 하고, 의례지향의 교육장을 만들기도 한다.

둘째, 도서민 남녀의 갱신활동(更新活動)으로서 시가무(詩歌舞)+놀이라는 전유행위를 통해 형성·유통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사랑에 눈뜨는 청년기³³⁾ 15~6세 정도³⁴⁾에서 시작되는 도서민 남녀의 생활문화³⁵⁾이다. 따라서 신명추구의 방편인 시가무+놀이를 통해 삶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 자연적 조건과 역사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에 근거한 일상활동, 생산활동, 갱신활동의 통일과 그 작용에 의해서 변화·발전된다는 점이다. 강한 휴식과 놀이가 필요한 도서·연안지역에서 전승되는 산다이문화는 특수한 해양민속의 한 사례로서, 그 원리는 자연적 조건과 역사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 등을 존재론적 근거로 하고, 일상활동, 생산활동, 갱신활동 등을 인식론적 근거로 하여 대상적 체계화를 이룰 때 바로 인간의 삶의 미학에서 찾아진

33) 나승만 조사, 백남선(남, 61)·고상권(남, 64)·박삼용(남, 61) 제보, <명절 산다이>, 전남 완도군 노화읍 동고리, 1996. 6. 24~28.

34) 나승만 조사, 최복연(남, 69)·조점심(여, 70)·임복진(여, 50)·최종심(여, 54)·고귀녀(여, 50)·최업덕(여, 53)·정이단(여, 52) 제보, <산 노래판 산다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대리, 1988. 7. 14~20.

35) 나경수, 『생활문화의 시각에서 본 영산포』, 『바다와 강 그리고 삶, 영산포』,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09, 104~115쪽.

다.³⁶⁾ 특히 행위주체자는 시가무(詩歌舞)+놀이와 마을간 이동을 할 때, 또한 마을구성원간 소통을 위한 소리문화장치와 마을간 열림을 위한 네트워크 장치를 구축³⁷⁾할 때 도서민의 생활문화가 다양화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민요공동체 산다이의 개별성이다. 첫째, 신앙, 의례, 놀이, 노동 등이 통합된 개방적 장르 체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산다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권역의 신앙, 의례, 놀이, 노동에서 장례 후 잘 노는가 아예 놀지 않는가의 정도에 따라 전개된다. 그러나 산다이의 의례, 놀이지향성이 민간적인 신앙의 노동문화와 분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신앙, 의례, 놀이, 노동의 요소가 시가무+놀이 속에서 결절·확대되고 있다. 즉 산다이문화는 연도·계절·절기·사안에 따라 민요와 마을이 총화되는 동시에 교육장과 노래판 사이의 어느 지점을 선점하는 것이다.

둘째, 민요공동체의 독특한 기능을 환기한다는 점이다. 기능(機能)³⁸⁾이란 어떤 요소 고유의 효력을 의미하고, 그 효력에 의해서 그 상황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객관적으로 규정된 하나의 목적에 응하는 것이다. ‘기능환기(機能喚起)³⁹⁾란 민속공동체의 구비연행자가 고유의 구비전승물이 연행이라는 ‘현장의 현재’에서 문화콘텐츠개발이라는 ‘상황’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공연 문화정책이라는 객관적인 목적에 응하도록 관심이나 기억 따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산다이는 도서민 남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생활문화라는 객관적인 목적에 응하도록 관심이나 기억 따위를 불러일으킨다. 즉 산다이는

36) 나경수, 앞의 발표논문, 2009, 71~79쪽.

37) 홍순일, 「도서·연안지역 민요공동체의 성격과 민요의 연행양상」, 『한국민요학』 제22집, 한국민요학회, 2008, 377~409쪽.

38) 기능의 정의를 논거로 들어 판소리단가에 적용했다(최정신, 「판소리의 추임새—청중의 추임새를 중심으로—」, 이기우·최동현 엮음, 『판소리의 지평—과제와 전개—」, 신아, 1990, 90~128쪽 중 117쪽을 인용한 홍순일, 「판소리단가의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992, 1~124쪽 중 72쪽을 재인용함).

39) 기능환기의 사례를 논거로 들어 기능환기(의미부여 포함)를 판소리에 적용했다(임재해, 「무엇」, 『문화관광』(미상), 2000, 홈페이지 <http://www.folklore.or.kr/> 탑재 자료를 인용한 홍순일, 「제6강 호남지역 민속연희공동체와 판소리」, 창원대 교류 하계 강의 교재 『호남문화론(호남의 도서·해양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5년 하계 계절학기, 84~99쪽을 참조함).

생활문화의 현장에서 연속, 변이, 선택되어 다시 형성·유통되는 것이다.

셋째, 민요공동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자체의 문예발전사를 가진다는 점이 다. 의미부여(意味附與)⁴⁰⁾는 민속공동체의 구비연행자가 구비전승물이 연행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이면에 맞는 언어구술에 응하도록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⁴¹⁾ 산다이는 도서민 남녀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생활문화라는 객관적인 목적에 응하도록 관심이나 기억 따위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적실한 의미를 부여한다. 즉 산다이가 놀이현장에서 생활문화로서 재형성될 때 배경의 현실인식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작가는 스토리텔링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왜 내가 지금·여기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이야기를 통해 얻어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내용을 주기 위해서 역사문화원형을 토대로 해서 근거 있는 이야기를 창작 내지 재창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성(眞正性)이 있어야 감동을 하고, 감동을 해야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⁴²⁾ 민요공동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산다이 행위주체자는 산다이가 놀이를 지향하는 소리문화의 연행물이라고 전제하고, “왜 내가 지금·여기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내용을 주기 위해서, 문화권역적 전개와 지역문화의 특성을 바탕으로 근거있는 놀이판을 형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성(眞正性)이 있어야 감동을 하고, 감동을 해야 다시 놀 수 있기 때문이다.

40) 기능환기와 의미부여를 판소리창본에 적용했다(홍순일, 「판소리창본의 공연문화콘텐츠적 성격」, 『공연문화연구』 16, 한국공연문화학회, 2007, 331~374쪽 중 337, 351~361쪽을 참조함).

41) [봉정사에서는 돌탑쌓기를 제대로 했다. 그것도 아주 무의미한 행위로 끝날 뻔했는데, 다행히 ‘엘’ 여왕이 주지 스님에게 돌을 쌓는 이유를 물어서 그 뜻이 살아났다. 준비된 절차에 따라 돌탑에다 돌을 쌓으려 할 때, “돌탑 쌓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고 여왕이 주지 스님에게 물었다. “네, 오래 사시라는 축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는 대답을 듣고서, 여왕은 “고맙습니다. 소원을 비는 의식이군요!” 하면서 돌을 쌓았다(임재해, 앞의 홈페이지 탑재 자료를 인용한 홍순일, 앞의 창원대 교류 강의 교재, 2005년 하계 계절학기, 84~99쪽 중 85~86쪽을 참조함).]

42) 김미경, 「영산포의 스토리텔링과 영상-바다와 강 그리고 삶, 영산포-」, 『바다와 강 그리고 삶, 영산포』,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09, 79~89쪽.

이처럼 민요공동체(산다이)는 <서남해권>, <서해권>, <남해 및 제주권>, <동해권> 등의 문헌/현지조사 자료를 대비할 때 일반성과 개별성을 알 수 있다.

〈표〉 민요공동체 ‘산다이’의 일반성과 개별성

구분	내용	비고
일반성	① 역사적으로 지역문화가 특성화되고, 사회적으로 문화권역이 전개된 실체로서, 놀이를 지향하는 소리문화의 연행물이다. ② 도서민 남녀의 갱신활동(更新活動)으로서 시가무(詩歌舞)+놀이라는 전유행위를 통해 형성·유통된다. ③ 자연적 조건과 역사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에 근거한 일상활동, 생산활동, 갱신활동의 통일과 그 작용에 의해서 변화·발전한다.	3장2절 앞의 논의 내용
개별성	① 신앙, 의례, 놀이, 노동 등이 통합된 개방적 장르 체계를 가진다. ② 민요공동체의 독특한 기능을 환기한다. ③ 민요공동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자체의 문예발전사를 가진다.	3장2절 뒤의 논의 내용

요컨대 민요공동체(산다이)는 섬의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서남해권의 경우 완도(보길도), 증도·지도 등에서, 남해 및 제주권의 경우 거문도, 남해도(창선도, 삼동면) 등의 마을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공동의 유대나 집합정신을 지녔다. 즉, 민요공동체(산다이)의 일반성은 사회적으로 문화권역이 전개되고, 역사적으로 지역문화가 특성화된 실체로서, 놀이를 지향하는 소리문화의 연행물이라는 점, 도서민 남녀의 갱신활동(更新活動)으로서 시가무(詩歌舞)+놀이라는 전유행위를 통해 형성·유통된다는 점, 그리고 자연적 조건과 역사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에 근거한 일상활동, 생산활동, 갱신활동의 통일과 그 작용에 의해서 변화·발전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그 개별성은 신앙, 의례, 놀이, 노동 등이 통합된 개방적 장르 체계를 가진다는 점, 민요공동체의 독특한 기능을 환기한다는 점, 그리고 민요공동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자체의 문예발전사를 가진다는 점 등이다.

4. 민요, 민요공동체, 마을의 삼자관계와 사적 가치

이 제4장은 제3장의 논의에 대응되는데, 필자는 사적 가치를 파악하는 방향에서 민요, 민요공동체, 마을의 삼자관계와 사적 가치를 논의하겠다. 민요공동체사에서 민요, 민요공동체, 마을의 삼자관계를 통해 민요공동체, 특히 산다이를 중심으로 문화권역적 전개와 지역문화적 특성이 지니는 사적 가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마을사에서 민요, 민요공동체, 마을 등은 삼자관계에 있고, 사적 가치를 규정한다. 왜냐하면 행위주체자가 구비전승물(민요, 판소리, 설화·고소설) 외에 마을[민속공동체]에서 민간적인 신앙·의례·놀이·노동의 도구[매체]를 가지고 놀기 때문이다.⁴³⁾ 민요공동체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산다이는 ‘민요’와 ‘마을’이 총화되어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조사의 결절점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요공동체(산다이)는 ‘민요’와 ‘마을’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권역적 전개를 통해 지역문화적 특징을 살펴야 한다. 그럴 때 민요전승(연속, 변이, 선택)의 실상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요공동체의 첫 번째 사적 가치는 마을단위로 민요행위주체자간의 소통공간이 되고, 민요행위주체자의 민요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의 장이라는 점이다. 이 실천의 장은 ‘치고 나가는’ 민요공동체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준다. 그래서 세시풍속과 민속놀이의 중심에서 민요행위주체자의 삶에 대한 경쟁력을 드높여 준다.

두 번째 민요공동체의 사적 가치는 연행 시 민요행위주체자로 하여금 과거왕래를 쉽게 하게 하여 민요가 지닌 외연(外延)의 기능과 내포(內包)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노래판이라는 점이다. 이 노래판은 ‘일이 되게 하는’ 민요공동체의 추진력을 제공해 준다. 그러므로 일생에서 민요행위주체자의 삶에

43) 하회탈놀이 외에 하회마을과 하회탈을 지정하는 일을 주목할 수 있다(임재해, 『지역민속에 의한 지역문화 창출의 준거와 방향』, 『지역민속과 지역문화 창출』, 조직위원회·국립민속박물관, 2007, 17~44쪽).

대한 의지력과 추진력을 드높여 준다고 하겠다.

민요공동체는 민요행위주체자가 인식한 마을을 민요로 전유해 나가게 하는 교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세 번째 사적 가치가 있다. 이 교육의 장은 전승 면에서 민요행위주체자가 ‘꼭 있어야 하는’ 민요공동체를 확대재생산시킨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민요행위주체자의 삶에 대한 영향력과 협상력을 드높여 준다고 하겠다.

요컨대 민요, 민요공동체, 마을의 삼자관계와 사적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산다이의 민요공동체는 마을단위로 민요행위주체자간의 소통공간이 되고, 민요행위주체자의 민요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의 장이라는 점, 연행시 민요행위주체자로 하여금 과거왕래를 쉽게 하게 하여 민요가 지닌 외연의 기능과 내포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노래판이라는 점, 그리고 민요행위주체자가 인식한 마을을 민요로 전유해 나가게 하는 교육의 장이라는 점 등에서 의의가 크고, 이것은 ‘민요’와 ‘마을’이 총화됨으로써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조사의 결절점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5. 맺음말

지금까지 한반도 도서·연안지역 민요공동체(산다이)를 섬의 관점에서 문화권역의 민요공동체 전개를 살피고, 지역문화의 민요공동체 특성을 논의했다. 이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민요공동체의 문화권역적 전개를 권역의 구분과 민요공동체의 전개로 구분하여 살폈다. 문화권역을 설정하는 전제로서 구역(區域)은 반도의 시각에 따라 산·들[평야]·강·연안·도서[섬]·해양의 측면에서 지역(地域)을 보는 경우,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제주권, 경상권, 해외권 등 7구분이 중심이 된다. 이것은 4구분에서 6구분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11구분과 17구분이 되게 한 것이다. 이에 비해 섬의 시각에 따라 해양·도서

[섬]·연안·강·들[평야]·산의 측면에서 해역(海域)을 보는 경우, 서남해권, 서해권, 남해 및 제주권, 동해권 등 4구분은 서남해역, 제주해역, 동남해역, 서해해역, 동해해역 등 5구분의 중심에서 사안에 따라 재구성된 것이다.

민요공동체(산다이)는 문화권역의 신앙, 의례, 놀이, 노동에서 장례 후 잘 노는가 아예 놀지 않는가의 정도에 따라 전개된다.新安군 증도지역민은 마을에서 남녀를 구분하는 상황에서 노래만 하고 춤의 요소를 뺀다. 거문도(서도)지역민은 세시(설, 보름, 봄의 화전놀이, 여름의 해수욕, 추석), 계 등에서 산다이를 하고, 초상 때는 아예 그것을 놀지 않는다. 그리고 남해도(창선도)지역민은 일생(결혼, 환갑, 칠순, 팔순), 세시(설, 정월대보름, 추석) 때 산다이를 하지만, 초상 때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 같은 군인 남해도(삼동면)지역민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이에 비해新安군 지도지역민은 상(喪) 중에 달애를 하고, 완도군 보길도지역민은 장례 뒤에 산다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 즉 민요공동체(산다이)는 ‘민요’, ‘마을’과 총화되어, 의례를 중시할 때 교육의 장이 되고, 놀이를 중시할 때 노래판이 된다. 이것은 노동과정에서 실천의 장이 확대되는 결절점이 된다. 즉 민요공동체(산다이)는 ‘민요’와 ‘마을’이 총화되어, 의례를 중시할 때 교육의 장이 되고, 놀이를 중시할 때 노래판이 된다. 이것은 노동과정에서 실천의 장이 확대되는 결절점이 된다.

다음으로 민요공동체의 지역문화적 특성을 지역의 구분과 민요공동체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권역 내 지역이 섬의 시각을 띠고, 지역문화의 장기지속과 단기변화를 날로 하여 구분될 때, ‘민요’와 ‘마을’이 총화된 민요공동체(산다이)는 권역별로 전개된다. 서남해권의 경우 목포, 완도(보길도), 진도, 증도·임자도·지도·하의도 등에서, 서해권의 경우 범성포, 위도, 선유도·무녀도·장자도, 안면도(황도), 영흥도(선재도), 연평도에서, 남해 및 제주권의 경우 광양(진월), 추자도, 거문도, 남해도(창선도, 삼동면) 등에서, 동해권의 경우 기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민요공동체(산다이)는 섬의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서남해권의 경우 완도(보길도), 증도·지도 등에서, 남해 및 제주권의 경우 거문도, 남

해도(창선도, 삼동면) 등의 마을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공동의 유대나 집합 정신을 지녔다. 즉, 민요공동체(산다이)의 일반성은 사회적으로 문화권역이 전개되고, 역사적으로 지역문화가 특성화된 실체로서, 놀이를 지향하는 소리 문화의 연행물이라는 점, 도서민 남녀의 갱신활동(更新活動)으로서 시가무(詩歌舞)+놀이라는 전유행위를 통해 형성·유통된다는 점, 그리고 자연적 조건과 역사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에 근거한 일상활동, 생산활동, 갱신활동의 통일과 그 작용에 의해서 변화·발전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그 개별성은 신앙, 의례, 놀이, 노동 등이 통합된 개방적 장르 체계를 가진다는 점, 민요공동체의 독특한 기능을 환기한다는 점, 그리고 민요공동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자체의 문예발전사를 가진다는 점 등이다.

끝으로 민요, 민요공동체, 마을의 삼자관계와 사적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산다이의 민요공동체는 마을단위로 민요행위주체자간의 소통공간이 되고, 민요행위주체자의 민요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의 장이라는 점, 연행시 민요행위주체자로 하여금 과거왕래를 쉽게 하게 하여 민요가 지닌 외연(外延)의 기능과 내포(內包)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노래판이라는 점, 그리고 민요행위주체자가 인식한 마을을 민요로 전유해 나가게 하는 교육의 장이라는 점 등에서도 의의가 크고, 이것은 ‘민요’와 ‘마을’이 총화됨으로써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조사의 결절점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이로써 민요공동체, 특히 산다이는 역사적으로 지역문화가 특성화되고, 사회적으로 문화권역이 전개된 실체로서 민요공동체의 개별성과 일반성을 동시에 획득하고 있어서 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남해권과 서해권과 남해 및 제주권에서 현지조사한 ‘산다이’의 특징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 이에 조응하는 동해권의 ‘산다이’ 사례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계획상 현재의 연구성과와 다른 나라의 사례와 대비해야 한다는 점 등은 이 논문의 한계이다. 이것은 이후의 연구거리라고 하겠다.

■ 참고문헌

1. 자료

1) 문헌조사 자료

김미경, 「영산포의 스토리텔링과 영상—바다와 강 그리고 삶, 영산포—」, 『바다와 강 그리고 삶, 영산포』,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전남대 용지관 멀티미디어 회의실, 2009.11.11, 79~89쪽.

김윤희, 「민요공동체의 지역문화적 특성과 문화권역적 전개—산다이의 개별성과 일반성을 중심으로—」(홍순일)에 대한 토론편, 『공동체 지역문화와 문화권역』, 역사문화학회, 충북 제천 세명대학교 민송도서관 시청각실, 2009.08.21, 85쪽.

김중혁, 「유역권으로 본 문화권」, 『발표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나경수, 「해양민속학의 연구방향」,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양문화학 학술대회 자료집』 1,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목포대 교수회관 3층 강당(구 대회의실), 2009.10.22, 71~79쪽.

_____, 「생활문화의 시각에서 본 영산포」, 『바다와 강 그리고 삶, 영산포』,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전남대 용지관 멀티미디어 회의실, 2009.11.11, 104~115쪽.

나승만 총괄책임연구원/강봉룡·강영봉·강상택·주강현·강등학 권역책임연구원/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주관기관, 『한국의 해양문화—요약보고서』, 해양수산부, 2002.10.

_____, 『한국의 해양문화』 1-5, 해양수산부, 2002.

목포대,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신청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5.10.

_____,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신청서, 2009년도 인문한국지원사업 인문분야 신청서 「섬의 인문학—문명사적 공간인식 패러다임의 전환—」 (1),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9.07.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1991)·전남(1993)·경남(1994)·전북(1995)·경북(1995)·충남(1995)·충북(1995)·경기(1996)·강원(1996)민요해설집』, MBC.

배영동, 「호미씻이의 지역성 해명」, 『발표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석대권, 「풍물의 지역성 규명」, 『발표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이경엽, 「IV. 민속문화자원/IV. 민속문화자원/III. 무형문화자원/III. 무형문화자원」,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13/14/15/16집 『도서 문화유적 자료조사 및 자원화 연구2-비금면/흑산면/도초면/안좌·팔금면 편-』,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신안군, 2003.12/2003.12/2005.10/2005.10, 105~158/102~172/89~219/88~250쪽과 285~342쪽.
- _____, 「도서·해양문화 연구의 쟁점-민속분야를 중심으로-」, 『도서학과 지역학의 탐색-서남해안지역의 역사와 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순천대 남도민속연구소, 목포대 교수회관 2층 회의실, 2007.06.07.
- 이창식, [미발표]「산다이의 재검토」,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양문화학 학술대회 자료집』 2,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목포대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구 소회의실), 2009.10.22, 204~215쪽.
- 이현수, 「민요공동체의 지역문화적 특성과 문화권역적 전개-산다이의 개별성과 일반성을 중심으로-(홍순일)에 대한 토론문, 『공동체 지역문화와 문화권역』, 역사문화학회, 충북 제천 세명대학교 민송도서관 시청각실, 2009.08.21, 86~1쪽부터 86~2쪽까지.
- 임재해, 「무엇」, 『문화관광』(미상), 2000, 홈페이지 <http://www.folklore.or.kr/> 탑재 자료.
- _____, 「지역민속에 의한 지역문화 창출의 준거와 방향」, 『지역민속과 지역문화 창출』, 조직위원회·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2007.10.25, 17~44쪽.
- 전중환, 「유교문화 지역논의」, 『발표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주강현, 「민중구술로 본 시흥해역의 어민생활사-20세기 어로기술사를 중심으로-」, 『해양문화학』 제2호, 한국해양문화학회, 2006.06, 119~180쪽.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년도 한국학기획연구사업 한국학자료센터 구축사업 신청요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획연구사업단, 2008.06.
- 허경희·이준곤, 「IV. 민속문화자원」,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12집 『도서 문화유적 자료조사 및 자원화 연구1-압해면 편-』,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신안군,

2003.12, 162~192쪽.

홍순일, 「호남지역 민속연희공동체와 판소리」, 창원대 교류 강의 교재 『호남문화론(호남의 도서·해양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5년 하계 계절학기, 84~99쪽.

홍순일·이옥희·이명진, 「민요」, 『남도민속연구』 제12집, 남도민속학회, 2006.06, 303~376쪽.

홍순일, 「지도/중도/임자도의 설화와 민요」, 『도서 문화유적 자료조사 및 자원화 연구 6/7/8-지도/중도/임자면 편-』,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신안군, 2006.09, 103~164/63~122/101~162쪽.

홍순일·엄수경·김현주·한은선·이혜숙, 「중도의 민요」, 『도서문화』 제28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12, 663~732쪽.

홍순일·김현주·한은선, 「섬진강 유역의 진월면·다압면 민요」, 『남도민속연구』 제14집, 남도민속학회, 2007.06, 445~492쪽.

홍순일·김현주·김혜미·최유미, 「선유도·무녀도의 설화와 민요」, 『도서문화』 제30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7.12, 387~431쪽.

홍순일, 「서해바다 연평어장권의 구비전승물과 해양정서」, 『연평도 주민들의 삶과 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남도민속학회, 목포대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구 소회의실), 2008.11.29, 76~97쪽.

_____, 「민요공동체의 지역문화적 특성과 문화권역적 전개-산다이의 개별성과 일 반성을 중심으로-」, 『공동체 지역문화와 문화권역』, 역사문화학회, 충북 제 천 세명대학교 민중도서관 시청각실, 2009.08.21, 63 ~84쪽.

_____, 「남해 도서지역의 구비전승물과 해양정서-멸치를 중심으로-」, 『거문도와 남해도의 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목포대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구 소회의실), 2009.10.15, 71~93쪽.

_____, 「한반도 도서·연안지역 해양정서의 구비적 전승」,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양문화학 학술대회 자료집』 2,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목포대 교수회 관 2층 세미나실(구 소회의실), 2009.10.22, 244~ 285쪽.

2) 현지조사 자료

(1) 국내조사 자료

번호	일시	지역	조사자	제보자	제보내용	비고
1	1988. 7. 14~20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대리	나승만	최복연(남, 69) 조점심(여, 70) 임복진(여, 50) 최중심(여, 54) 고귀녀(여, 50) 최업덕(여, 53) 정이단(여, 52)	<산 노래판 산다이>	문헌조사
2	1992. 1. 15~19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나승만	최영자(여, 53) 정매자(여, 55) 김재길(남, 58) 외 11명	<장례 뒤의 산다이>	문헌조사
3	1992. 6. 22~25	전남 완도군 소안면 부상리	나승만	양희자(여, 34) 박은복(남, 50) 최동남(여, 55) 최금남(여, 62)	<노래판 산다이>	문헌조사
4	1996. 6. 24~28	전남 완도군 노화읍 동고리	나승만	백남선(남, 61) 고상권(남, 64) 박삼용(남, 61)	<명절 산다이>	문헌조사

5	2005. 10.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해수욕장	이경엽, 김혜정, 홍순일, 송기태, 김현주	김유선(여, 미상, 김석출 옹의 부인) 외	<오구굿>	현지조사
6	2005. 6. 30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나동리 석성마을 210	홍순일, 이옥희, 박민주	안성단(여, 79)	<생애사, 당당패의 활동양상, 진도아리랑, 육자백이, 흥그레, 강강술래, 자장가, 흥타령, 물레야, 등당애, 상여소리, 모심는 소리, 다구질 소리>	현지조사
7	2005. 7. 20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염산마을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정장례(여, 69)	<산다이, 자장가>	현지조사
8	2005. 7. 21	전남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홍순일, 엄수경, 한은선	고순례(여, 78)	<산다이, 나무하러 가서 하는 소리, 강강술래>	현지조사
9	2006. 4. 18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홍순일, 김현주, 이해숙	박성남(남, 69)	<산다이, 한풀이, 물속에 잠긴 얼굴, 밤다래>	현지조사
10	2006. 5. 11	임자면 이혹암리 대머리	홍순일, 김현주, 최유미	김광윤(남, 67)	<산다이>	현지조사
11	2006. 5. 12	전남 신안군 임자면 채원리	홍순일, 김현주	정칠복(남, 67)	<산다이>	현지조사
12	2006. 5. 12	전남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 872	홍순일, 김현주	고문심(여, 69), 김동심(여, 66), 장귀심(여, 69)	<산다이>, <강강술래>, <아리랑타령>, <등당애타령>, <성주풀이>, <널리리아>, <베틀노래>, <모심는노래>, <논매는소리>, <모찌는소리(무한들소리)>, <풍장소리>, <애기어르는 소리>, <방아타령>, <들강달강>, <상여소리>, <청춘가>, <허랑타령>, <뺏노래>	현지조사
13	2006. 6. 2	전북 부안군 위도면 별금리 313,	홍순일, 김현주	김명덕(여, 76)	<산다이, 위도민요>	현지조사

14	2006. 6. 2	전북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93번지	홍순일, 김현주	서순임(여, 76)	<산다이, 위도민요>	현지조사
15	2006. 7. 6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선소마을	홍순일, 한은선	염정수(남, 67)	<산다이(일본말), 상여소리, 청춘가, 진도아리랑, 들노래, 전어잡이노래, 춘향가(이별가)>	현지조사
16	2006. 7. 6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선소마을	홍순일, 김현주, 한은선	박귀녀(여, 92) 김덕순(여, 83) 박수덕(여, 76)	<‘모여서 놀자’하기(내닥주개 포함), 시집살이노래, 아리랑(랑)타령, 배틀가, 상사소리, 뱃소리, 자장가, 물레 돌리는 소리. 일본아 동경아>	현지조사
17	2006. 7. 7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신기마을	홍순일, 김현주, 한은선	김봉래(남, 61) 박부명(남, 80) 김은배(남, 77)	<산다이(일본말), 전어잡이노래, 배 금기어>	현지조사
18	2006. 7. 7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신담마을	홍순일, 김현주, 한은선	김매옥(여, 76) 강옥림(여, 75) 진순애(여, 85) 정정림(여, 75)	<산다이(일본말), 아리랑타령. 노들강변, 도라지타령, 진도아리랑, 명사십리, 물레 돌리는 소리, 시집살이노래, 혼자 사는 노래, 시어머니 생각날 때 부른 노래, 자장가>	현지조사
19	2006. 7. 8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대리마을	홍순일, 김현주	김말순(여, 72) 이말남(여, 84)	<‘한 잔 먹고 놀자’하기(사월초파일에 ‘우리 등산하자’고 함), 물레타령, 진도아리랑, 아리랑타령, 시집살이노래, 육자백이, 장타령>	현지조사
20	2006. 7. 8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대리마을 경로정	홍순일	김형순(여, 79) 항택임(여, 76)	<노래공동체(산다이라는 말을 모름), 진도아리랑, 성주풀이>	현지조사
21	2006. 7. 13	전남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2구 당촌마을	홍순일, 김현주	김이배(남, 82) 김인배(남, 66)	<산다이, 지도민요>	현지조사

22	2006. 7. 19~20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3구	홍순일, 김현주, 최유미	정풍녀(여, 77) 석필순(여, 81)	<산다이, <아리롱타령>, <노들강변>, <방에 방에>, <자장가>, <들강달강>, <상사소리>>	현지조사
23	2006. 8. 12.	임자면 광산리 하우리	홍순일, 김현주	주옥순(여, 80)	<모여 소리하며 놀기, <등당에 타령>, <베 짜는 소리>, <물레 돌리는 소리(실 빼면서 하는 소리)>, <일본 군가>>	현지조사
24	2006. 8. 12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홍순일, 김현주	오임(여, 87)	<산다이>	현지조사
25	2006. 11. 3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 추자면 대서리 5-10	홍순일	지승일(남, 41)	<채뉘기, 유자망, 유어선, 해너>	현지조사
26	2007. 2. 27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2 리 문말 마을회관(선재리 다목적 회관),	홍순일, 조화영	백순열(여, 82) 백옥분(여, 66) 강순녀(여, 77) 백승옥(여, 81) 우선희(여, 82)	<산다이>	현지조사
27	2007. 6. 26	충남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	홍순일	강대성(남, 77) 이병순(여, 76)	<산다이, 배치기>	현지조사
28	2008. 4. 22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홍순일, 한은선	김복순(여, 78)	산다이 외(60분16초)	
29	2008. 4. 22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나승만, 조경만, 홍순일, 박종오, 한은선, 조화영, 조인경	유광삼(남, 77) 박종문(남, 72) 노창식(남, 69) 박봉래(남, 74)	배치기 외(124분42초)	
30	2008. 4. 22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홍순일, 조인경	노창식(남, 69)	군밤타령, 나나나타령, 배치기(10분12초)	
31	2008. 4. 22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조경만, 홍순일, 박종오, 조화영, 조인경	노래방주인(여, 미상)	군밤타령(1분24초)	

32	2008. 4. 23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홍순일	이유성(남, 81)	조금 때 놀기 외 (197분55초)	
33	2008. 4. 23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홍순일	전종준(남, 85)	소산계(유곽) (18분25초, 7분43초) 설화, 소리(배치기), 산다이(65분37초)	
34	2008. 6. 24	전남 신안군 하의면	홍순일	우예순(여, 82) 김숙자(여, 84) 권삼택(여, 84)	—연자방아 외 37분49초	현지조사
35	2008. 6. 24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	홍순일	이홍채(남, 69, 1940)	—주특기는 판소리 39분44 —이홍채(남,69) 아들 이창운(남,39) 인사 58초 —소리와 한풀이 7분5초 —생애 12분41초 —한소리회의 운영 40분58초, 22분54초 —가족사진 2분52초	현지조사
	2008. 6. 25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	홍순일	이홍채(남, 69, 1940)	—농민운동기념관의 연자방아 사설 1분24초	현지조사
36	2008. 6. 25	전남 신안군 하의면 응곡2리 36	홍순일	이홍채(남, 69, 1940)	—사찰가(처음 녹음못함), 홍보가 매맞으러 가는 대목, 신뱃노래사설, 산다이 18분2초 —산다이 6분11초 —제34회 남도문화제 단체사진설명 5분57초 —마을의 대회출전사 9분41초 —판소리고수(서장식)에 대한 평가 12분 —이동전 인사말(산다이 녹음 실패) 9분6초	현지조사
37	2009. 4. 22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홍순일	신종광(남, 49)	풍어제의 거문도뱃노래시연 3분52초	현지조사
38	2009. 4. 23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홍순일	정경용(남, 63)	뱃노래보존회 임원 5분42초	현지조사

39	2009. 4. 23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홍순일	박종산(남, 74) 정경용(남, 63)	거문도뱃노래와 풍어제 12분30초	현지조사
40	2009. 4. 23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홍순일	박종산(남, 74) 정경용(남, 63)	뱃노래의 조사장소 4분17초	현지조사
41	2009. 4. 23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홍순일, 송기태	박종산(남, 74) 정경용(남, 63)	술비소리, 뱃노래, 선소리꾼 96분41초	현지조사
42	2009. 4. 23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홍순일, 조인경	박종산(남, 74) 정경용(남, 63)	후계자, 산다이, 추자도멸치잡이 57분34초	현지조사
43	2009. 4. 23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홍순일	박종산(남, 74)	거문도뱃노래에 관한 몇 가지 의문 3분37초	현지조사
44	2009. 4. 23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홍순일, 조화영	김동수(남, 75) 박천일(남, 78) 정종태(남, 75)	산다이 9분43초(녹음실래)	현지조사
45	2009. 5. 8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홍순일, 조화영	최귀덕(여, 89)	12살 때 부른 창가 4분24초	현지조사
46	2009. 5. 8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홍순일, 조화영	김춘심(여, 79)	소리 1분56초	현지조사
47	2009. 5. 8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홍순일, 조화영	김춘심(여, 79)	소리 40초	현지조사
48	2009. 5. 8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홍순일, 조화영	김춘심(여, 79)	소리(여기부터 영상) 14분	현지조사
49	2009. 5. 8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홍순일, 조화영	김춘심(여, 79)	소리(앞부분 또래노래팀 설명) 2분	현지조사
50	2009. 5. 8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홍순일, 조화영	김춘심(여, 79)	소리(전체 산다이 유도) 3분51초	현지조사
51	2009. 5. 8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홍순일, 조화영	조경례(여, 86) 이정례(여, 74)	산다이 전 2분29초	현지조사

				김춘심(여, 79) 김명례(여, 87)		
52	2009. 5. 8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홍순일, 조화영, 조인경	조경례(여, 86) 이정례(여, 74) 김춘심(여, 79) 김명례(여, 87)	산다이 63분48초	현지조사
53	2009. 5. 8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홍순일	김동남(남, 미상)	거문도뱃노래보존회 활동내용 22분56초	현지조사
54	2009. 5. 9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홍순일, 송기태	정경용(남, 63)	(고사소리), 액막이 6분6초	현지조사
55	2009. 5. 9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홍순일, 송기태	정경용(남, 63)	술비소리 15분26초	현지조사
56	2009. 5. 9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홍순일, 송기태	정경용(남, 63)	거문도뱃노래 25분3초	현지조사
57	2009. 5. 9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물양장	홍순일	수협	거문도뱃노래보존회원 뒷풀이(거문도의 노래들) 47분2초	현지조사
58	2009. 5. 9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홍순일	김의근(남, 71)	멸치(갈치, 삼치)잡이 9분57초	현지조사
59	2009. 7. 21	경남 남해군 창선리 진동리 장포마을	홍순일, 조화영	하찬설(남, 86, 1925) 김길환(남, 88, 1923) 송덕화(남, 91) 하찬급(남, 80, 1931)	산다이, 95분53초	현지조사
60	2009. 7. 21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88 남해역사연구회	홍순일, 송기태, 조화영	정의연(남, 55)	상여소리, 62분11초	현지조사
61	2009. 7. 22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468-1 →물건방조어부림	홍순일, 송기태	이묘명(남, 78) 김영옥(남, 81)	물건방조어부림 · 산다이 · 설화, 114분49초	현지조사

(2) 국외조사 자료

번호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자	제보자	제보내용	비고
1	2007. 3. 30	미야지마	김준, 문병채, 이운선, 홍선기, 홍순일	부가쿠 공연자들	부가쿠	부가쿠, 연수, 사쿠라
		히로시마	문병채, 이운선, 김준, 김재은 홍선기·홍순일	도부공자(渡部公子) 카미 히카루(紙光) 출본경치(出本敬治)	보존회 《쌀로 술을 만들 때 하는 소리》(<오후에 술 짓는(술을 섞을 때) 소리>를 현대식으로 바꾸어 사이조 술 만들기의 대표로 만든 최신판의 소리), <쌀 씻을 때 하는 소리>, <좋은 효모를 만들 때 하는 소리>, <오후에 술 짓는(술을 섞을 때) 소리>, <추석 때에 하는 소리>, <아이들이 하는 소리>, <히로시마현 기아리에서 하는 소리>	
2	2008. 7. 17~19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김지민, 신순호, 이현종, 문병채, 홍순일, 홍선기, 박선미, 조세인	윤혜숙 외	대마도의 구비전승	현지조사

2. 저서

국립민속박물관, 『어촌민속지-경기도·충청남도 편』, 국립민속박물관, 1996.
 _____, 『경남 어촌민속지』, 국립민속박물관, 2002.
 나승만·고혜경, 『노래를 지키는 사람들』, 문예공론사, 1995.
 나승만 총괄책임연구원/강봉룡·강영봉·강상택·주강현·강등학 권역책임연구원/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주관기관, 『한국의 해양문화』 1-5, 해양수산부, 2002.
 나승만 외, 『다도해 사람들-사회와 민속』, 경인문화사, 2003.
 노동은, 『한국근대음악사』 1, 한길사, 1995.
 서해숙, 『지역민속의 전승체계와 활용』, 민속원, 2007.
 신용하 편, 『공동체 이론』, 문학과지성사, 1985
 실천민속학회 편, 『조선후기 민속문화의 주체』, 집문당, 2004.
 이윤선, 『구술 진도민속음악사』 1, 이소북, 2004.
 주강현, 『주강현의 관해기 일상과 역사를 가로지르는 우리 바다 읽기 관해기 1/2/3 남
 쪽바다/서쪽바다/동쪽바다』, 웅진 지식하우스, 2006.
 최성락 외, 『다도해 사람들-역사와 공간』, 경인문화사, 2003.
 편집부 구성, 『철학에세이』, 동녘, 1983.
 _____, 『생활속의 변증법』, 유월, 199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류정아 책임집필, 『한국의 지역문화-현황과 정책방향을 중
 심으로』, 대왕사, 2008.
 홍순일, 『판소리창본의 회곡적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02. [재수록] 홍순일,
 『판소리창본의 회극정신과 극적 아이러니』, 박이정, 2003.

3. 논문

강등학, 「<모심는소리>와 <눈매는소리>의 전국적 판도 및 농요의 권역에 관한 연
 구」, 『한국민속학』 제38집, 한국민속학회, 2003.12, 15-91쪽.

- 강등학, 「경북지역 <논매는소리>의 기초적 분석과 지역적 판도」, 『한국민속학』 제40집, 한국민속학회, 2004.12, 217~251쪽.
- _____, 「<땅다지는소리>의 지역적 판도와 노동요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민요학』 제18집, 한국민요학회, 2006.06, 49~91쪽.
- 권오경, 「경북-충북 도계지역 민요의 특성과 공동체 문화」, 『구비문학연구』 20,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06, 71~114쪽.
- 김옥란, 「극전통과 판소리의 미학」, 『한국극예술연구』 4, 태학사, 1994.
- 김월덕, 「호남지역 마을굿의 분포양상과 지역적 특징」, 『한국민속학』 제42집, 한국민속학회, 2005.12, 105~148쪽.
- 김혜정, 「여성민요의 음악적 존재 양상과 전승 원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02.
- 나승만, 「소안도 민요사회의 역사」, 『도서문화』 제11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3.12, 125~189쪽.
- _____, 「소포리 노래방 활동에 대한 현지 연구」, 『역사민속학』 제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1993, 27~45쪽.
- _____, 「완도지역 민요연행의 실상과 변천」, 『민요논집』 제2집, 민요학회, 1993, 77~109쪽.
- _____, 「남동리 민요공동체 당당패의 성립과정」, 『한국민요학』 제2집, 한국민요학회, 1994.08, 85~106쪽.
- _____, 「민요의 분포권과 현장체험」, 『도서문화』 제14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6.12, 363-366쪽.
- _____, 「구비문학과 분포권」, 『도서문화』 제14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6.12, 411~416쪽.
- _____, 「근대 민요 공동체에 대한 사적 고찰」, 『구비문학연구』 제2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5.12, 100~125쪽.
- _____, 「노래판 산다이에 대한 현지작업」, 『한국민요학』 제4집, 한국민요학회, 1996.11, 39~62쪽.

- 나승만, 「민중 생애담 조사법」, 『한국민속학』 제9호, 민속원, 1999.11, 192~204쪽.
- _____, 「뱃사람들의 생활과 생애이야기」, 『한국의 해양문화』 1 서남해역 (하), 해양수산부, 2002.12, 60~131쪽.
- _____, 「서남해역 해양민요」, 『한국의 해양문화』 1 서남해역 (하), 해양수산부, 2002.12, 525~569쪽.
- 나승만·홍순일, 「무안민요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론적 활용—들노래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제29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7.06, 317~366쪽.
- 박광순, 「한국어업공동체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75.
- 박현주, 「초점: 서울시 권역별 문화적 특성 연구」, 『방송통신정책』 19-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24~41쪽.
- 박혜정, 「충남의 앓은곳 음악의 문화권역 시론」, 『한국무속학』 18, 한국무속학회, 2009.02, 35~82쪽.
- 사재동, 「한국회곡사 연구서설」, 『어문연구』 제18·19집, 어문연구학회, 1988.05·1989.05, 91~113·99~135쪽.
- 서영숙, 「충청 지역 서사민요의 전승양상과 문화적 특질」, 『어문연구』 제58집, 어문연구학회, 2008.12, 285~310쪽.
- 이경엽, 「남사당 노래의 전승과 민속의 창조적 수용」, 『민속학연구』 8, 국립민속박물관, 2001.08, 221~242쪽.
- _____, 「도서지역의 민속연희와 남사당연구—신안 남사당 노래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33집, 한국민속학회, 2001.06, 225~254쪽.
- _____, 「서남해 지역의 남사당 관련 민속연희와 연희자 연구」, 『고전회곡연구』 제5집, 한국고전회곡학회, 2002.08, 209~233쪽.
- _____, 「서해안의 배치기소리와 조기잡이의 상관성」, 『한국민요학』 제15집, 한국민요학회, 2004.12, 215-248쪽.
- _____, 「임자도의 파시와 파시 사람들」, 『도서문화』 제24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4.12, 353-383쪽.
- _____, 「포구의 기능과 연행민속 전승의 상관성」, 『한국민속학』 제44집, 한국민속학

- 회, 2006.12, 305~332쪽.
- 이기태, 「경북 마을제당 구성요소의 분포와 문화권역」, 『한국민속학』 제47집, 한국민속학회, 2008.05, 341~405쪽.
- 이옥희, 「한국 시가문학의 문답체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9.08.
- 이운선, 「땃배노래에 나타난 어민 생활사: 진도군 조도군도를 중심으로」, 『민요논집』 제7집, 민요학회, 2003.
- _____, 「조기잡이 땃배와 어로민요 땃배 연구」,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한방, 「영남지역 문화권역의 재구성」, 『논문집』, 대한지리학회, 2005.05, 173~175쪽.
- 이현수, 「마을공동체의 변모양상-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18집, 비교민속학회, 2000.02, 117~123쪽.
- 임재해, 「민속놀이의 주술적 의도와 생산적 구실」, 『한국민속학』 제27집, 민속학회, 1995.12, 315~364쪽.
- _____, 「한국전통문화에 나타난 공동체 의식」, 『기독교사상』 365, 대한기독교서회, 1989.05, 26~36쪽.
- 전경수, 「사자를 위한 의례적 운간-추자도의 산다위-」, 『한국문화인류학』 24, 한국문화인류학회, 1992.03, 301~322쪽.
- 조경만, 「‘도서문화’ 민속분야 연구의 반성」, 『도서문화』 제7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0.04, 259~279쪽.
- 지춘상·나경수, 「진도아리랑 형성고」, 『호남문화연구』 18,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988.12.
- 최정선, 「판소리의 추임새-청중의 추임새를 중심으로-」, 이기우·최동현 엮음, 『판소리의 지평-과제와 전개-』, 신아, 1990, 90~128쪽.
- 홍순일, 「《도서지역 민요》와 문화관광-〈신안민요〉·〈완도민요〉·〈진도민요〉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제17집, 한국민요학회, 2005.12, 311~355쪽.
- _____, 「《도서지역 민요》와 민속문화정보」, 『한국민요학』 제19집, 한국민요학회, 2006.12, 275~313쪽.
- _____, 「서해 도서지역의 구비전승물과 해양정서-조기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제28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6.12, 519~567쪽.

홍순일, 「판소리창본의 공연문화콘텐츠적 성격」, 『공연문화연구』 16, 한국공연문화학회, 2007.02, 331~374쪽.

_____, 「《신안민요》의 언어문학적 접근과 소리문화적 활용—<지도민요>·<증도민요>·<임자도민요>를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제14집, 남도민속학회, 2007.06, 321~366쪽.

_____, 「서해바다 황금갯벌의 구비전승물과 해양정서」, 『도서문화』 제30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7.12, 287~335쪽.

_____, 「도서·연안지역 민요공동체의 성격과 민요의 연행양상」, 『한국민요학』 제22집, 한국민요학회, 2008.04, 377~409쪽.



Culture-District Development of the Folksong Community and Its Regional Characteristics

—Focused on Sandai—

Soon-Il Hong*

This study inquired into a folksong community (Sandai) of island/shore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viewpoint of an island, with not only focusing on culture-district development, but also on historical values that functional change and semantic endowment have as a local culture in the modern society.

The study first reviewed on the culture-district development of a folksong community. As a proposition which defines a cultural district, when it comes to a sea area, four groups of the Southwestern area, the West area, the South area and Jeju area and the East area are regrouped into five groups of the Southwest area, Jeju area, the Southeast area, the West area and the East area according the perspective of island. The folksong community (Sandai) is developed in the degree on whether people play or not following a funeral regarding religion, ceremony, performance and labor in a cultural district. People of Jeung-do, Geomoon-don (Seo-do) and Namhae-do (Changseon-do, Samdong-myeon) do not play with Sandai after a funeral service. This becomes the educational place due to the importance of ceremony. On the contrary, people of Ji-do and Bogil-do perform Sandai during mourning and after a funeral. This becomes a festive mood which

* Mokpo National University

emphasizes performance.

Next, the study speculates on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a folksong community. The folksong community (Sandai) realizes membership and communitive spirits that residents have in the village as it develops by the region of a district. The folksong community (Sandai), as the after-party of sori-culture which aims at play, monopolizes poet, song and dance and play by the unification and its activation on daily activity, production activity, and renewal activity. In addition, it possesses open genre systems integrating religion, ceremony, play and labor, changes its specific function, and endows meaning on it.

Last, the study considered the historical value of the folksong community, Sandai. As a communicative place, the folksong community of Sandai is worthwhile in that it becomes a place of practice which help people recognize folksongs, becomes a festive place which expands the function and meaning of a folksong and serves to possess a village with folksongs. As a communication space, the folksong community has its significance in being a practical place where a folksong spirit can be realized, and a song place which expands the function and meaning of folksongs when performances are conducted, and exclusively covers villages with folksongs. In particular, the essential meaning can be found in that it is the node of inspection that becomes in harmony with 'folksong' and 'village', and enables the research on them.

<key words> folksong community, Sandai, culture district, local culture, island, peninsula, shore, area, development, characteristic, particularity, universality

* 이 논문은 2009년 10월 30일에 투고되어 2009년 12월 1일에 심사 완료되고 2009년 12월 4일에 편집위원회의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